地域主義는 世界化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理論的·歷史的 考察[1]

梁 東 烋

세계경제가 지역주의에 의해 지역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후생수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태적으로 볼 때 지역통합은 貿易創出(trade creation) 효과가 있는 만큼 후생 증가를 가져오지만, 역외에서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을 고비용의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즉 貿易轉換(trade diversion) 효과가 있는 경우 비효율과 후생감소를 초래한다. 여러 지역통합 블록이 동시에 설립될 때 상호작용과 전략적 행위, 그리고 동태적 시간 경로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된 세계경제에서는 협상당사자의 수가 줄어들어 협상이 쉬워지고 무임승차 문제도 잘 해결되어 완전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 빨라지고 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블록은 시장지배력을 수반하므로 내부지향적이고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경향이 있으며 역외국가에 블록을 개방할 필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지역주의를 最惠國(MFN) 待遇 원리와 연결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도록 게임의 법칙을 수정해 나아가는 데 있다.

1. 地域主義의 現況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된 경제적 地域主義, 地域統合의 움직임은 개방되고 통합된 세계화 경제의 원만한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대 일변도의 유럽聯合(EU)은 무역장벽을 유지 또는 강화함으로써 여타국가가 유럽시장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 北美洲 自由貿易協定(NAFTA)은 북미시장에서 타지역 수출업자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감수하도록 강요한다. 라틴아메리카의 地域統合運動(MERCOSUR)도 극도로 차별적이다.

2003년 9월 世界貿易機構(WTO)의 깐쿤회의가 와해된 후 세계적인 무역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2001년 11월 도하 개발의제가 시작된 이후 계속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EU 확장 등을 생각하면 WTO 회담은 빨라야 2005년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보조금 삭감문제, 면직물 수출 저개발국 문제

(1) 이 연구는 濟源硏究財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등이 산적해 있는데도 오히려 FTA 등이 만발하여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지역적 접근이 다자간 국제무역의 발전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많다. 즉 地域主義가 最惠國(MFN) 待遇 원리에 입각한 世界化의 '디딤돌'(building blocks)인가 아니면 반대로 '걸림돌'(stumbling blocks)인가 하는 논의를 理論的·歷史的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2)

필자는 다른 곳에서 '世界化'를 역사적으로 조망하였는데〔양동휴(2004)〕, 이 글은 그 중 일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우선 그 글의 요약부분을 옮겨보자.

> 경제학적으로 세계화란 재화 및 용역과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세계화라는 용어의 사용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시장 통합의 역사는 약 1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화를 역사적으로 조망하여, 즉 세계화의 2차 물결(20세기 후반 이후)을 1차 물결(19세기 후반에서 1차대전까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혀내었다. 1) 교통 통신의 발달과 무역 장벽의 완화로 상품시장의 통합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함께 '수직적 특화'에 따른 산업내 교역이 신장하였다; 2) 국제자본이동은 포트폴리오 형태로 SOC나 정부 부문으로 흘러들던 것이 차츰 직접 투자의 형태로, 그리고 금융, 유통 등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금융 제도의 발달에 따라 자본시장 통합의 가속에도 불구하고 통화 위기의 빈발 위험은 줄어들었고 그 위기의 강도는 회복 속도로 볼 때 낮아졌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 비대칭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졌다; 3) 대량이민이 줄었다. 노동시장 통합이 덜하다 해도 요소가격 균등화의 움직임은 지속된다. 미숙련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가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4) 국가간 불평등이 커졌지만 세계화가 그 원인은 아니다. 국가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다; 5) 불평등도를 따지지 않아도 세계화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반세계화 운동 세력이 세계화를 중지 내지 후퇴시킬지도 모르나,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성숙했기 때문에 세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지역주의 움직임이 다자간 협상과 경합하고 있다. 불비례적 효과가 다소 우려된다; 7) 세계화를 조율하는 가버넌스가 문제이며 WTO 체제 개선방안들이 무성하다.

즉 여기서는 위의 6)과 7)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 용어는 Bhagwati(1991, p. 77)에서 유래하였다.

몇몇 개념들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世界化는 앞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상품 및 요소시장의 통합, 나아가서는 제도적 수준의 협조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되 차별이 없는 최혜국(MFN) 대우의 원리에 입각한 一方的(unilateral) 또는 多者間(Multilateral) 장벽감소를 의미한다. 地域主義는 "국가들의 부분집합 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mong a subset of nations)이라고 느슨하게 정의하자〔Bhagwati(1993, p. 22)〕. 여기에는 自由貿易協定(FTA: free trade agreement), 關稅同盟(CU: customs union), 共同市場(CM: common market) 등이 포함된다.(3) 또는 이와 같이 엄밀하게 정의되는 개념들과는 실체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地域的 貿易合意(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나아가서는 경제정책이나 제도의 조정을 포함한 地域統合(Regional Integration)의 움직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자 한다.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상반되게 교대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클라크〔Clark(1997)〕의 용어로 世界化와 破片化(fragmentation)는, 1914년 이전에는 동시에 심화되었다가 1차대전 중에는 파편화가, 20년대에는 세계화가, 30년대와 2차대전기에는 파편화가 우세하였다. 전후 냉전시기에 세계화 쪽으로 기울다가 냉전의 침식과 붕괴 이후 다시 양자가 공존한다고 설명한다. 19세기 후반에는 최혜국(MFN) 대우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이 기조였으나 전간기에는 파괴적인 쌍무적 조정만 남아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하였다. 전후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의 MFN 조항은 貿易自由化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 제네바 회의부터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은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세계 무역량이 대폭 늘었다.(4)

이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지역주의의 팽창이 있었는데 1960년대 초와 1980년 중엽 이후가 그것이다. GATT 제24조는 MFN 규정의 예외조치로 관세동맹과 FTA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유럽共同市場(ECM)의 자극을 받은 지역주의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또 다른 지역의 저개발국에 풍미하였다. 이들은 주로 수입대체 공업화를 목표로

---

(3) 우선적 무역협정(PTA)은 회원국 간에 특혜 관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비회원국과 차별을 두는 것이며, FTA는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전 철폐)을 보장, CU는 이에 더하여 공동역외관세(CET)를 채택한다. 공동시장(CM)은 상품교역뿐 아니라 노동, 자본, 서비스와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지역통합의 최고 단계를 지칭한다.

(4) GATT/WTO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의심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최근 수브라마니안과 웨이〔(Subramanian and Wei(2003)〕는 비대칭적이기는 하지만 GATT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밝히고 있다. 이 효과는 선진 공업국들에, 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가입한 저개발국에 컸으며 식품, 의류, 신발류 부문에는 작았다.

〈表 1〉 GATT 年譜

연도	사건
1947.4	Geneva Round(23개국이 GATT에 조인)
1947.11-48.3	Havana Conference(ITO Charter)
1949	Annecy Round
1950-1	Torquay Round(30개 GATT 회원국, 세계무역의 80% 차지)
1956	Geneva Round
1960-2	Dillon Round
1964-7	Kennedy Round
1971	GATT 정신에 반하여 GSP(Generalized System of Perferences) 도입
1974	First Multifibre Arrangement
1973-9	Tokyo Round
1986-94	Uruguay Round
1995	GATT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의해 대체됨
2001-	Doha Development Agenda

하고 있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때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미국은 多者主義(mutilateralism)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1980년대 중엽 이후의 지역주의 추세에서도 미국이 주요 선봉이 되었다. 미국은 1989년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고 이에 멕시코를 영입, 1994년 NAFTA를 설립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전미주자유무역지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U도 지속적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單一通貨(euro)를 도입하였다. 이러는 중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어적 블록을 형성하는 형태로 지역주의가 부흥한 것이다.(5)

〈表 2〉는 유럽經濟共同體(EEC)가 설립된 1957년 이후의 주요 RTA를 연대별로 나열한 것이다. 중요도와 상관없이 GATT 이후 최근까지 RTA의 숫자를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2003년 10월 현재 WTO 사무국에 통보된 RTA 수는 WTO 회원국 수(146개국)의 거의 2배에 이르는 270개에 달하며, 국제무역의 60% 이상이 RTA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6) 이 중 현재 발효 중에 있는 것만 189개이며 그 내용은 〈表 3〉에, 자세한 목록은 附錄에 표시하였다. 두 개 이상의 RTA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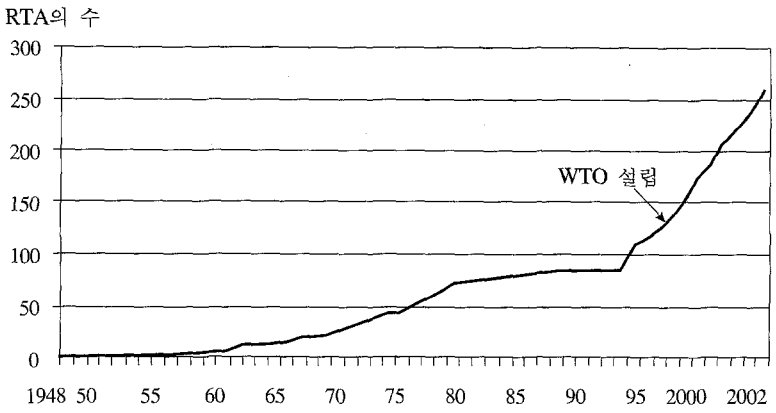
(5) 1990년대를 지역주의의 세 번째 물결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다〔예를 들어, Dee and Gali(2003)〕. 이때는 이미 관세가 충분히 낮아졌으므로 초점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경쟁정책, 노동, 환경 쪽으로 옮아갔다는 것이다.

(6) 이는 GATT 24조뿐 아니라 WTO 협상시 체결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5조에 따른 RTA, 또 도쿄라운드(1973-79) 결과 채택된 허용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한 개도국들의 지역무역 협정을 포함한다〔김세원(2004, p. 593)〕.

〈表 2〉 主要 RTA 年譜, 1957-2004

연도	아프리카/중동	유럽	미주	아시아/태평양
1957		1957 Treaty of Rome,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결성 1959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1960		1960 EFTA 형성		
1965		1967 EE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와 Euratom institutions 합병 1968 Customs Union 완성		1965 Australia와 New Zealand 제한적 FTA 조인(CER)
			1969 Andean Pact 최초로 발효	
1970				
1975	1975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형성			
		1979 European Monetary System 형성		1978 ASEAN 제한적 preferential trade area(PTA) 발효
1980	1980 South Africa 견제 위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SADCC) 형성			1983 CER Agreement 종전의 FTA 확대
1985		1986 Single European Act 발효		1985-87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PTA 확장
			1988 Canada-US FTA 조인	1988 CER 서비스 포함토록 확장
	1989 Arab Maghreb Union (AMU) 형성			
1990	1991 African Economic Commuinty treaty 조인 AMU 통합추진 1992 SADCC가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SADC) 됨 1993 AMU 통합연기	1991 EC와 EFTA European Economic Area(EEA) 형성 합의 1992 Maastricht treaty 조인 1993 Maastricht treaty 발효	1991 Mercosur 형성 1992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협상시작	1992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PTA 출범 1993 Seattle 정상회의,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자유무역목표 채택
	1994 AEC Agreement 발효, South Africa SADC 참여	1994 EEA 발효	1994 NAFTA 발효, Miami 정상회의 FTAA 추진시작	1994 ASEAN, AFTA를 2003년까지 달성토록 합의, APEC FTA를 2020까지 달성키로 한 보고르 선언
1995	1995 EU와 기타 지중해국가간 EuroMed FTA 논의	1995 EU 회원국 15개로 확대	1995 Mercosur CET 형성 1996 Andean Pact가 Andean Community로 됨 1998 FTAA 창설 위한 산티아고 선언 채택	1995 SAPTA 관세인하의 First Round 1996 APEC 무역, 투자 자유화 위한 마닐라 실행계획(MAPA) 채택 1997 ASEAN Vision 2020
	1999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아프리카 연합 위한 시테르 선언 채택	1999 EU 11개국 유로화 도입		
2000		2000 EU-Mexico FTA 2004 EU 회원국 25개로 확대		2004 한국-칠레 FTA 발효

資料: Frankel(1997, pp. 8-9), 최근정보 추가함.



資料: WTO 사무국(2004)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그림 1〉 地域貿易協定(Regional Trade Agreement)의 進展

〈表 3〉 2003年 10月 13日 現在 GATT/WTO에 通報되고 發效中인 地域貿易協定의 數

상태	허용조항	GATS V조	GATT XXIV조	합계
실사 미요청	16	1	5	22
실사 미시작	0	6	17	23
실사중	1	14	24	39
실사완료	0	2	65	67
보고서초안 검토중	0	4	8	12
보고서채택	2	0	24	26
합계	19	27	143	189

資料: WTO 사무국(2004).

2. 地域主義의 歷史와 經濟的 成果

1960년대 지역주의의 제1차 물결은 GATT 출범부터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國際貿易機構(ITO)에 불참함으로써 사실상 GATT를 창안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관세동맹이나 FTA 형태의 지역주의는 MFN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MFN의 예외조항으로 GATT 24조를 설치하였는데 당시에 미국은 아직 다자주의를 신봉하고 있었으며 유럽의 사정을 감안하여 타협한 면이 있다. GATT 제24조는 관세동맹과 FTA의 형성을 허용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즉, 관세동맹의 경우 공동역외관세와

기타 교역장벽이 관세동맹 이전에 통용되었던 수준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되며, FTA의 경우에도 개별역외관세와 기타 교역 규제가 FTA 이전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 1967년부터 개도국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던 許容條項(Enabling Clause)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이 일정 단계까지 발전하는 동안 MFN 원리의 적용을 유예해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관세동맹이나 FTA는 형성 계획과 시간 계획을 협정에 포함할 경우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이 조건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규정 자체에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내포되어 있다〔Finger(1993) 참조〕.

실제로 제1차 지역주의 물결의 대표주자인 유럽經濟共同體(EEC)의 연원은 유럽復興計劃(ERP, 마샬플랜)에 있다. 마샬플랜은 1948년 4월-1951년 12월의 기간 동안 서유럽 16개 국에 총 126억 달러(요즘 가격으로는 약 1000억 달러)를 공여와 차관 형태로 지원한 혁신적 원조였다. 마샬원조의 조건 중 수혜국들 간에 원조금 사용계획을 공동으로 제출케 하는 규정은 유럽經濟協力機構(OEEC, 1948, 이후 OECD로 확대개편)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OEEC는 관련 법규 제정(예를 들어, Code of Trade Liberalisation)을 통하여 일정별로 유럽 제국 간 수량제한의 철폐를 이룩했다. 또한 마샬플랜은 IMF와 미국재무성의 다자주의 원칙을 극복하게 해줌으로써, 그리고 3억 5천만 달러의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럽支拂同盟(EPU, 1950)을 결성케 하였는데, OEEC와 EPU가 유럽통합에 기여한 바가 크다. EPU는 국제결제은행(BIS)에만 지불책임이 있고 IMF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은 이 지불동맹은 궁극적으로 1958년 태환재개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1950년대 초부터 서독이 EPU를 통해 고비용의 쌍무적 무역에서 유럽내의 다자간 무역으로 이행하도록 허용되었으며 브레튼우즈체제로 직접 흡수될 필요가 없게 하였다〔Eichengreen(1995), Yang(2004)〕. 1944년에 협약된 브레튼우즈 체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1947년의 파운드화 위기, 1949년 서유럽 국가들 통화의 평가절하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러는 가운데 지역주의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것이다.

형태상으로 關稅同盟의 추구로부터 共同市場, 共同貿易政策, 通貨同盟 등으로 계속 심도를 더해간 EEC는 이와같이 출범 초부터 특수성이 있었다. 완전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또 유럽연합(EU)이 거의 하나의 경제단위로 세계경제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EEC는 특수하다.(7) 그러나 1차 물결에서 GATT 24조를 이용한 EEC를 모방

(7) 1991년부터 GATT는 EC를 국제무역상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였다[Pomfret(1997, p. 130)].

하려는 다른 지역주의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였다. 개도국끼리 시장을 확대하여 수입대체 공업화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려는 FTA나 관세동맹들은 전부 좌절되었다. 산업을 무역자유화와 가격메카니즘이 아니라 관료적 타협에 의해 배분하려 했던 것도 한 원인이다. 실제로 1960년대의 비교적 성공사례는 EEC와 EFTA밖에 없다〔Bhagwati(1993, Chs.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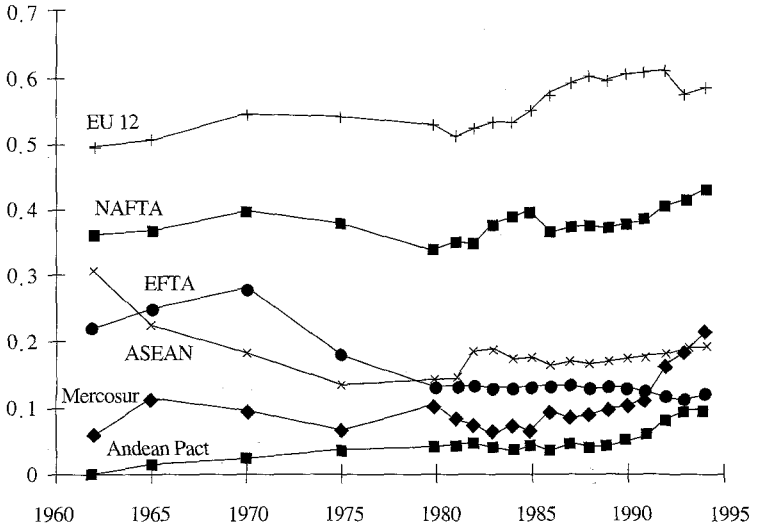
1980년대 이후의 제2차물결은 미국이 다자주의를 포기하고 GATT 24조에 개종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지역주의가 MFN의 대안이라고, 또는 보완책이라고, 그리하여 세계화를 가속시키리라고 생각한 미국은 캐나다, 이스라엘 등과 FTA를 맺기 시작하였고 무역수지적자의 누적 때문에 신속한 결과를 원하였다.(8)

미국의 태도가 多者主義에서 地域主義로 선회한 것은 당시 GATT 협상이 예전보다 지지부진했던 데 기인한다. 크루그만〔Krugman(1993)〕은 GATT의 한계점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즉 회원국이 많아져서 협상이 더 힘들고 無賃乘車者(free-rider) 문제가 심각해졌다; 보호의 형태가 관세나 수량할당에서 자발적 수출제한(VER), 덤핑방지(AD), 기타 행정조치로 다양해짐에 따라 협상공간이 복잡해졌다; 미국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체제를 선도하기 힘들게 되었다; 주요국 간의 제도적인 차이로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일본같은 경우 '비공식적 이해와 카르텔'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自由市場'에 입각한 미국과는 관세인하약속이 갖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중엽 이후에는 재화 용역이나 생산요소의 이동을 넘어선 제도적 수준의 조화, 예를 들어 공동입법이나 노동, 환경 등의 표준설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공업국과 저개발국 간의 지역통합은 주로 선진국의 정치적 이득과 저개발국이 VER, AD같은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유인이 맞물려 시도되고 있는데 후생수준의 효과는 모호하다. 작은 나라일수록 아직 불확실한 세계적 무역 체계에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보다 선진국 간, 또는 선후진국 사이의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권장되고 있다〔De Melo and Panagariya(1993, pp. 20-21)〕.

좌우지간 1980년대 중엽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적 성과는 어떠한가. 〈그림 2〉는 주요 FTA의 域內貿易比率을 표시한 것인데 이 비율의 분모는 각 그룹의 총 무역량이며 분자는 그룹 회원 간의 무역량이다. FTA의 효과로 무역패턴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흔히 쓰이는 이 지표는 몇 가지 문제를 내

(8)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럽이나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로 의심하는 논자들도 많다. 그러나 미국 중심 지역주의의 옹호론자들은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지름길이라고, 자유와 번영을 확장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를 들어, Griswold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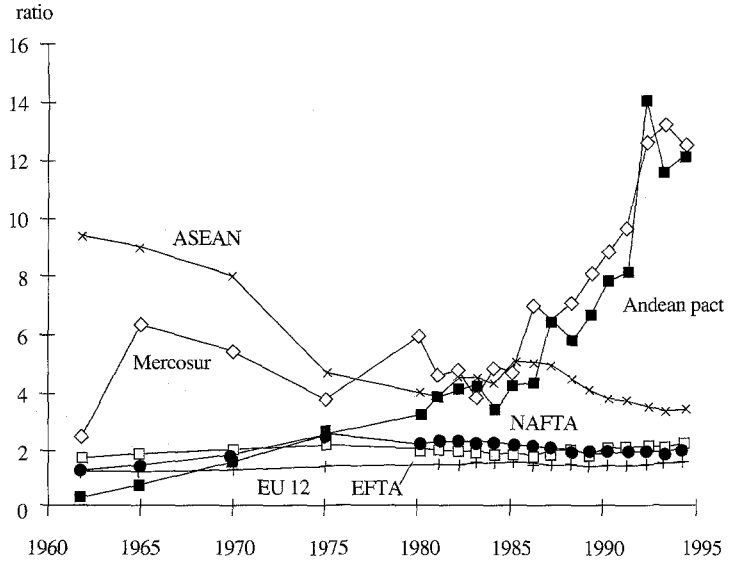
資料: Frankel(1997, p. 23)

〈그림 2〉 主要 FTA의 域內交易 比率

포하고 있다. 우선 역내무역비율이 EU나 NAFTA같은 큰 그룹에서 매우 높고 안데스조약(Andean Pact)같이 작은 그룹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EU나 NAFTA가 안데스조약국보다 역내교역을 추진하는 데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대규모 경제그룹이 소규모 경제그룹보다 더 집단적인 자급도가 높고 역외국과의 무역에 덜 의존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지구전체가 참여하는 FTA를 상정하면 이 비율은 100%가 된다. 이와같은 난점은 각 그룹간의 비교에서 뿐 아니라 개개 그룹의 역내무역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해석하는 데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9)

지역별 집중의 좀 더 나은 척도로서 역내무역비율을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각 그룹의 중요도로 나눈 域內集中率(concentration ratio), 또는 域內貿易 集約度(intensity)가 쓰인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나 NAFTA의 집중율이 거의 불변인데 반해 Mercosur와 Andean Pact의 집약도는 1990년대에 들어 높고 급속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접한 소규모 경제들에서 FTA가 형성된 후 域內貿易이 域外貿易을 더욱 빠른 속도로

(9) 역내무역비율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FTA의 효과를 나타내는 척도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資料: Frankel(1997, p. 27).

〈그림 3〉 主要 FTA의 域內貿易 集約度

代替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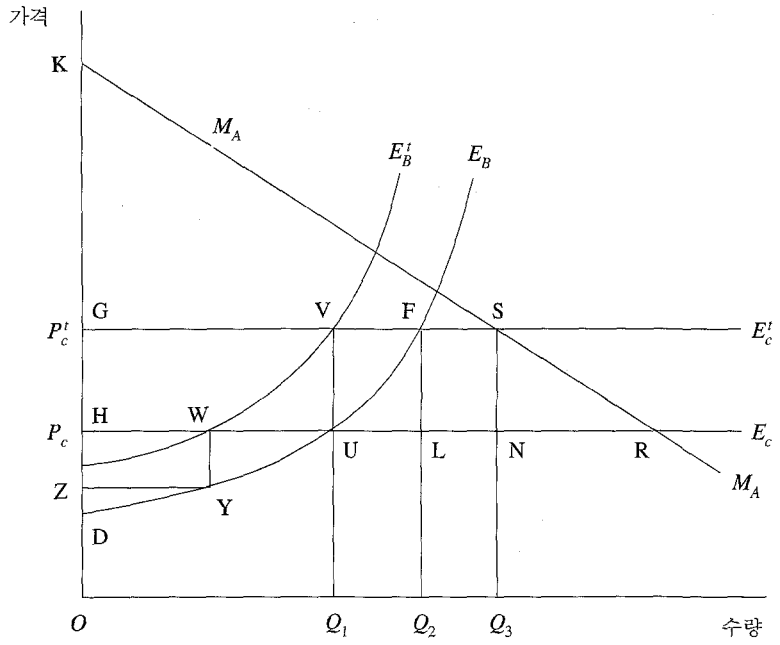
3. 地域主義의 厚生效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참여국 각각과 비참여국, 그리고 전세계의 후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는 이론적으로 情態的 均衡分析과 動態的 時間經路 問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결과가 가정 및 조건에 따라 불분명하게 나오는 경우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3.1. 靜態的 厚生分析

우선적 무역협정 특히 관세동맹의 후생분석이 바이너(Jacob Viner)에 의해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세계에 생산비가 높은 순서로 A, B, C 세 나라가 있다고 하고 초기상태에는 일정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A가 C국

(10) 소규모 개도국과 대규모 선진공업국 간의 FTA는 한편으로는 소국이 대국의 넓은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한 이점이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교역조건효과와 관세수입손실효과 때문에 손해를 보는 면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3장의 시사점을 참조할 것.



資料: Bhagwati and Panagariya(1996a, p. 14)에서 전재.

〈그림 4〉 B國의 供給曲線이 右上向일 때 關稅同盟의 效果

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A와 C가 관세동맹을 체결하면 무역장벽이 낮아진 만큼 무역이 확대되는 貿易創出(trade creation) 효과가 있어 세계적으로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관세동맹을 맺으면 무역창출 효과와 함께 생산비가 낮은 C에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B로 수입원이 바뀌는 貿易轉換(trade diversion) 효과가 있게 되어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후생증가여부가 결정된다.

이제 약간 더 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B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를 생각하자.(11) 〈그림 4〉가 이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M_A는 A국의 수입수요곡선, E_B와 E_C는 B국과 C국의 공급곡선, B_B^t와 E_C^t는 관세동맹 이전 관세를 감안한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관세동맹 이전에는 A국이 B국으로부터 OQ_1을, C국으로부터 Q_1Q_3를 수입하게 된다. 이때 A국과 B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하면 A국은 B국으로부터 OQ_2를, C국으로부터 Q_2Q_3를 수입하며 A국과 C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하면 A국은 B국으로부터 HW를, C국으로부터 WR을 수입하게 된다. 물론 완전한 세계적 자유무역이 달성되면 A국은 B국

(11) 이 모형도 지나치게 단순하지만 이 글에서 논의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表 4〉 一方的 自由化(自由貿易)와 FTA(A國+B國), FTA(A國+C國)의 厚生水準

국가	무차별적 관세 (초기상태) (1)	자유무역 (FT) (2)	FTA (A와 B) (3)	FTA (A와 C) (4)
A	KGS+GHNS	KGS+GHNS +RSN (A이득)	KGS+GHNS -GFLH (A손실)	KGS+GHNS +RSN+HWYZ (A이득)
B	HDU	HDU (변화없음)	HDU +(GFLH-FLU=)GFUH (B이득)	ZYD =HDU-WYU-HWYZ (B손실)
C	0	0 (변화없음)	0 (변화없음)	0 (변화없음)
전세계	KGS+GHNS +HDU	KGS+GHNS+HDU +RSN (세계이득)	KGS+GHNS+HDU -FLU (세계손실)	KGS+GHNS+HDU +RSN-WYU (세계는 RSN〉〈WYU에 따라 이득 또는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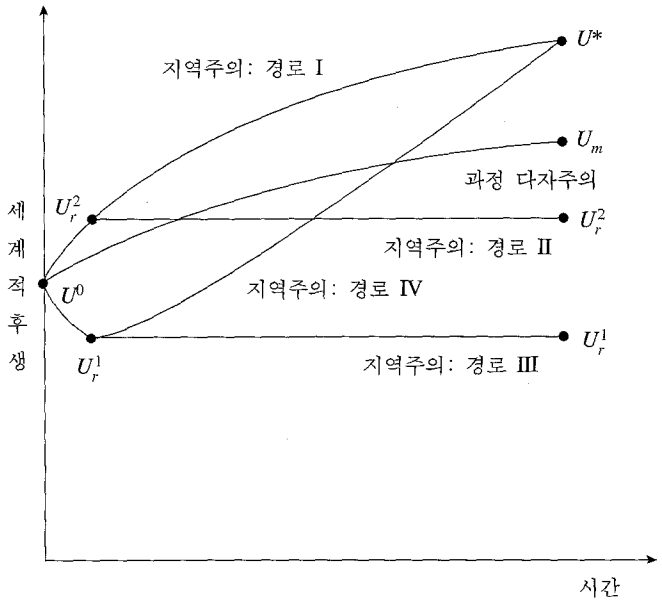
資料: Bhagwati and Panagariya(1996a, p. 15의 Table 1-1과 p. 18의 Table 1-2를 조합).

으로부터 HU를, C국으로부터 UR을 수입하게 된다. 각각 경우의 FTA와 세계적 자유무역하에서 각국 및 전세계가 얻을 후생증감을 정리한 것이 〈表 4〉이다.

세계적 자유무역(2)보다 FTA 즉 (3)와 (4)의 후생수준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초기상태(1)에 비해서도 A와 B의 FTA(3)는 명백한 후생감소, A와 C의 FTA(4)의 후생변화방향은 불분명하다. 실제 FTA가 (3)과 (4)의 중간정도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순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이득보다 손실쪽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개의 FTA에 따라 다를 것이며 경험적인 검토에 의해 결과를 따져야 할 것이다. 다만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전세계적 후생과는 별도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관세수입의 재분배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3)의 경우 A국은 손실, B국은 이득이며 (4)의 경우 A국에는 이득, B국에는 손실을 초래한다. 더욱이 地代追求(rent seeking)행위에 의해 지대가 소실되듯이 관세수입재분배의 이득이 비생산적 收入追求(revenue seeking) 때문에 소진된다면 FTA의 잠재적 이득이 전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Bhagwati and Panagariya(1996a, pp. 27-28)〕.

3.2. 動態的 時間經路 問題

관세동맹이나 FTA의 즉각적 충격효과가 세계적 후생을 증가시키느냐의 여부를 떠나



資料: Bhagwati(1993, p. 32)

〈그림 5〉 地域主義와 厚生: 靜態的 衝擊과 動態的 時間經路 問題

지역주의가 세계경제를 블록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확장이나 합병 등을 통해 세계적 자유무역에 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의 動態的 時間經路가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전세계적 자유무역(이것의 호불호와 관계없이)에 이르는데 더 빠르고 효율적인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림 5〉를 통해 설명한다면 세계후생의 초기수준 U^0에서 지역주의는 즉각적으로 후생을 U_r^2로 증진시킬 수도 있으며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U_r^1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지역주의의 시간과정은 어느 쪽이든 정체적일 수 있으며(경로 II와 III) 이는 초기 무역블록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은 채 세계경제를 분할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지속적인 확장이나 합병을 통해(경로 I과 IV) 세계적 자유무역의 극대점 U^*에 도달할 수도 있다. 過程으로서의 多者主義(process multilateralism) 하에서 시간경로는 U^*에 이르지 못하고 無賃乘車者(free-rider) 문제 때문에 U_m에 그칠 수 있다. 또는 이를 극복하고 U^*까지 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시간경로들이 독립적임을 가정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경로를 택하는 것이 과정다자주의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4장에서 볼 바와 같이 각 경로는 상호의존적이며 여러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서로 다른 경로에 변화를

준다. 〈그림 5〉는 地域主義의 時間經路가 팽창적인가 정체적인가의 형태로 '디딤돌'과 '걸림돌'의 개념을 예시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U^*에 도달하는 속도가 과정으로서의 다자주의 협상보다 빠른가. 역사적으로 보아 제1차 지역주의 물결은 거의 실패했으며 EC도 매우 느린 속도로 통합하였다. 共同農業政策(CAP)의 개혁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가 현실적 선택이라면 다자주의는 이미 사라졌을텐데 GATT/WTO는 아직도 확장일로에 있으며 무임승차자 문제도 별로 큰 것 같지 않다. 지역주의가 더욱 확실한가. 즉 무역자유화가 불가역적인가. GATT의 관세인하도 매우 구속력이 있다. 24조에 불분명한 점이 많지만 LAFTA나 ASEAN처럼 지지부진한 지역협력도 많다. 미국은 일본중심의 아시아 블록을 견제하는 파편화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Bhagwati(1993, pp. 38-45)〕. 과정으로서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간단치 않으며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3. 經驗的 硏究 一瞥

地域主義의 厚生效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엄청나게 많으나 자료선택이나 방정식 형태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모델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어느 나라 어느 집단의 후생수준이 무엇에 비해 높고 낮다는 것인지 질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走馬看山격으로 각 지역별 주요 무역협정들의 후생성과를 살펴보자.(12)

EC의 경우 관세동맹의 전반적 후생효과는 미미했다. 제조업의 경우 이득이 있었으나 농업, 석탄, 철강, 직물 등은 상호협력으로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EC의 확대는 신입회원국에 공동농업정책(CAP), 다자간 섬유협약(MFA) 등을 강요하여 경제를 왜곡시키고 비회원국들에게 더 큰 피해를 부과하였다. NAFTA의 무역 및 후생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에나 약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특혜는 수혜집단에게 후생증진을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지역주의의 후생효과는 수입품 간 대체 탄력성에 의존한다. 무역창출에서 수출업자의 이득은 미미하고 경쟁자의 손실은 더욱 얼마 안 되었다. 무역전환의 경우 수입대체업자가 약간의 도움을 얻었고 무역협정 불참국과 소비자, 담세자 전반이 손실을 나누어 졌다. CAP나 NAFTA는 세계경제의 순손실을 초래하였고 일반특혜제도(GSP)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더하여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비교 차원에서 시도된 최근의 분석은 지역주의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13)

---

(12) 이 부분에서는 주로 Pomfret(1997, Chs. 12-16)을 참조했다.

(13) gravity model을 근거로 한 경험적 분석에서 Dee and Gali(2003)는 우선적 무역협정의 무역전

4. 地域主義는 世界化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역주의에 대한 우호적 논의는 제2차 물결이 시작함과 동시에 등장하였다. 情態的 分析에서는 비차별적 장벽완화가 특혜협정보다 항상 우월하다. MFN 원칙의 포기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불완전경쟁에서 오는 왜곡을 상쇄한다거나 협상비용을 절감한다거나 하는 動態的 時間經路問題가 그것이다. 즉 地域主義가 세계적 자유무역의 극대후생(물론 항상 분배문제가 따르지만)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지역주의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에 관하여는 쉽게 결론을 낼 수도 없고 축적된 문헌이 많으나 여기서는 사안별로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14)

우선 지역주의가 다자적 세계화에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논의부터 살펴보자. 물론 貿易轉換, 그리고 投資轉換(investment diversion) 효과가 있는 경우 비효율과 후생감소를 초래한다.(15) 여러 지역통합 블록이 동시에 설립될 때 상호작용과 전략적 행위, 그리고

환 효과가 기존문헌이 의미하는 수준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特惠貿易協定의 純貿易創出과 純貿易轉換

기존 추계			새 추계	
순무역창출	불분명	순무역전환	순무역창출	순무역전환
Andean	LAIA	NAFTA	Andean	AFTA
CER	MERCOSUR		LAFTA/LAIA	EFTA
AFTA			US-Israel	EC/EU
EEC/EU?			SPARTECA	MESCOSUR
EFTA?				NAFTA
				CER
				EU-Switzerland
				Chile-Colombia
				Australia-PNG
				Chille-MERCOSUR
				EU-Egypt
				EU-Poland

資料: Dee and Gali(2003).

(14) 좋은 문헌 서베이로는 Panagariya(2000), Frankel(1997, Ch. 10), Winters(1996) 등이 있다.

(15) 1990년대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역주의의 투자전환효과보다 투자창출효과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두보'(beachhead) 확보용 투자는 사라졌다는 것인데 순투자창출효과의 예로 EFTA, EU, NAFTA, MERCOSUR, SPARTECA, CER을, 순투자전환효과

동태적 시간경로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된 세계경제에서는 협상당사자의 수가 줄어들어 협상이 쉬워지고 무임승차 문제도 잘 해결하게 되어 완전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 빨라지고 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블록은 시장지배력을 수반하므로 내부지향적이고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경향이 있으며 역외국가에 블록을 개방할 필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경우 지역주의는 세계화에 못 미치는 '죄수의 딜레마'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保護主義 誘因'은 블록 간의 상호 해외직접투자가 많아질 때, 그리고 보복의 위협이 커질 때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特定 利益集團의 행위로 인해 지역주의가 세계화로의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EU의 農業保護政策이며 최근 발효되는 대부분의 FTA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GATT 24조의 FTA 허가조건으로 협정국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품목의 교역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게 한 것은 같은 곳에 규정하고 있는 '과도기간'을 이용하여 회피할 수 있다(slow phase-out 작전). NAFTA협정에서의 미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이익집단이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양보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생산지별 무역특혜는 자발적 수출제한(VER), 덤핑방지(AD) 등을 통해 보호장벽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상외교와 협상을 위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지역협정에 몰두하느라 세계화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에너지가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세계화를 추진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지역구도가 정착되면 새로 생긴 기존 상태(new status quo)를 유지하려는 보수세력이 강화될 수 있다.(16) 이와 같은 행태들이 지역주의 논의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經路從屬'(path dependence)의 예이다.

지역주의가 다자적 세계화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논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地域貿易協定은 自由貿易의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무조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일단 달성된 수준의 자유화는 不可逆的이고(lock-in) 확실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一方的(unilateral) 자유화나 전세계를 상대로 한 多者間(multilateral) 자유무역 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의 경우라도 소규모 FTA는 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옳은 방향으로 뒷걸음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GATT/WTO의 무역자유화협약도 강제력이

의 예로 AFTA를, 효과가 불명확한 예로 Andean과 미국-이스라엘 FTA를 들고 있다〔Dee and Gali(2003)〕.

(16)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median voter model, Cournot oligopoly model 등이 원용되고 있다〔Panagariya(2000, pp. 317-325) 참조〕.

있으며 지역주의를 통한 길이 최소비용이 아닐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자유무역으로 가는 협상의 효율성에서 지역주의가 우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협상 당사국의 수가 적으므로 협상속도가 빠르고 손쉬우며, 세계적 협상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는 WTO 규정이 소홀히 하고 있는 논쟁점들에 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적소유권, 해외직접투자나 다국적 기업의 행위에 대한 규제, 공동 표준설정,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등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서 일종의 '實驗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GATT의 관세인하 등도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FTA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협상절차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임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협상분야에서의 실험은 손쉬울지 모르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경로종속에 빠질 위험이 상존한다.

'競爭的 自由化'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있다. 지역통합에 참여한 작은 나라는 불참하는 비슷한 나라에 비해 큰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海外直接投資(FDI)를 유치하는 데 약간 유리함을 보일 수 있다〔Ethier(1998)〕. 이와 같이 국제자본을 향한 경쟁이 촉진된다. 또한 일종의 전시효과에 의해서 자유화한 이웃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모방하려는 지역협정 가입유인이 있으며, 차츰 그룹에서 소외됨에 따르는 비용이 커지고 자유화수준의 톱니효과적 상승('ratcheting up')이 이루어진다.(17) 또한 지역통합이 새로운 회원에 배타적이지 않는 한(開放的 地域主義) 교역조건의 호전을 위해서라도 자유무역블록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상존할 것이며 자유무역지대는 경쟁적으로 팽창해 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실성과 지역협정의 크기에 따른 비대칭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 EU를 보면 競爭的 自由化가 아니라 競爭的 地域化를 추구하는 듯이 보인다.(18)

걸림돌이든 디딤돌이든 무수한 설명틀과 반박논리가 있을 수 있음이 자명하다. 지역주의가 1930년대에는 세계를 분할, 블록화, 파편화하고 시장통합의 역방향으로 치달은 반면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을 유지한 채 지속되고 있다. 김세원(2004, p. 597)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결론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역경제 통합이 자유무역주의적이냐, 아니면 보호주의적이나 하는 문제는 국제경제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17) 지역협정의 회원국가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세계가 하나의 FTA에 가입되는 극단적 경우도 상정된다(Kemp-Wan proposition).

(18) Gresham의 법칙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FTA만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되었다〔Bhagwati and Panagariya(1996a, p. 52)〕.

과거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호-보복주의가 되풀이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지역블록은 보호주의의 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최근과 같이 확대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통합은 그 성격으로 미루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성향을 띠게 된다.

또 국제무역이 자유화를 거듭함에 따라 다변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점차 완화되지 않을 수 없다.

GATT/WTO 등 제도적 측면이 중요하고 이미 관세, 비관세 장벽이 충분히 낮아져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무역 자유화에 관한 사상적 배경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19)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오히려 FTA의 만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즉 FTA는 대개 原産地 規則(rules of origin)에 의해 저관세국이 외부에서 수입한 상품을 고관세국에 재수출하는 貿易偏向(trade deflection)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상품이 FTA 회원국 간에 이동할 때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무관세로 이동할 수 있고, 같은 품목에도 산지에 따라 우선적 무역특혜를 차등 부과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웃소싱 등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 생산지를 알아내기 힘들 때가 많다. 이런 경우 행정적 재분류 작업에 의존하게 되므로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고 부패를 초래하는 등 혼돈스러울 만큼의 거래비용을 초래한다. 한 나라가 둘 이상의 FTA에 가입하고 있는 실타래와 같이 복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원산지 규칙 등은 소위 스파게티 접시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무차별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Bhagwati and Panagariya(1996a, pp. 53-54), Panagariya(2000, p. 295, fn. 14)〕.

무조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세계소득을 재분배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하므로 최고의 선은 아니다. 그러나 친세계화적 접근은 다른 대안보다는 가장 나은 경제정책인 듯 보인다. 차선책으로서의 지역주의는 진실된 공동시장(CM)을 지향하는 경우이거나, GATT/WTO 주최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통합물결을 막아야 하고 이도 안되면 차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헤게모니국과의 지역통합은 비효율적이고 비형평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NAFTA의 남미 또는 해외로 확장, EU의 여타국과 FTA 체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FTA化, 대서양연안자유무역협정(TAFTA) 추진 등이

(19) Institutions matter, …. Ideas matter even more.〔Pomfret(1997, p. 387)〕.

있다〔Bhagwati and Panagariya(1996a, p. 54)〕. 또한 바퀴통-바퀴살(hub and spokes) 관계도 비효율과 spoke 쪽의 상대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곤란하다〔Wonnacott(1996, p. 87 이하)〕. 또한 선진국들의 농산물, 직물 부문의 보호장벽과 보조금 지급, 또 VER, AD 등을 감안한다면 세계화의 비대칭성에 노출된 저개발국들은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에 신경을 쓰면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 자유무역으로 바로 이행하기 힘들다면 임시적 방편으로서 지역주의를 택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가 있다. 지역통합 움직임에서 제외될 경우 더욱 차별을 받고 뒤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통합을 추진할 경우 "開放的" FTA가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듯 보인다. 지역주의를 다자간 협상에 의한 세계화로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기로 하자.

5. 地域主義의 改善方向

지역주의를 통제하고 관리할 體制(regime)를 고안하는 것이 지역화된 국제경제의 개방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체제의 규칙을 집행하는 '가버넌스(governance)', 즉 "집단의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지도하고 제한하는 과정과 제도"〔Nye and Donahue(2000, p. 12)〕가 중요하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세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버넌스는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세계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자유방임은 세계화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20) 결국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등 공적 기관과 다국적 기업, 초국적 NGO 등이 각종 법률, 규범, 시장, 계획을 동원하여 가버넌스를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WTO를 개혁하여 궁극적 세계자유무역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규칙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다. 현재 발효중인 GATT 24조, 즉 MFN 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관세동맹과 FTA를 허용한 조항은, 지역적 무역협정의 차별행동으로부터 비참여국 일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지역협정이 189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GATT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켰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5개 정도밖에 안된다. GATT 제24조에서 FTA 관련 조항 중 허가조건으로 협정국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품목의 교역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되 '과도 기간'을 둘 수 있게 하여 그 범위와 속도를 매우 모호하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역외 관세 및 기타 장벽의 수

(20) '세계화된 경제'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특히 무임승차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준을 협정 이전보다 높일 수 없다는 조건은 상대국마다 다를 것이어서 '平均的'으로 적용하기도 곤란하고 위반여부를 따지기도 힘들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조에 공동 역외관세를 도입하는 관세동맹만을 허용하고 FTA는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행정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AD)와 제19조(VER)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조는 폐기하고 6조의 안티덤핑부과금의 발동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Bhagwati(1993, pp. 25-27, 35-37)〕. 이외에 추가적 권고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1) 同伴的 自由化: 역내 관세인하와 비례하여 역외관세를 인하한다. 한 가지 방법은 지역통합 참가국 중 통합 이전의 가장 낮은 관세율을 통합 후 공동관세로 정하는 것이다; 2) 單一 所屬: 각국에 하나의 우선적 무역협정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중복협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복잡하고 상호 이율배반적이고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지역주의 네트워크의 등장을 예방한다.; 3) 開放性: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의 규칙 이외의 부가적 조건을 받아들이게 강요하지 못한다.; 4) 규칙 개정에서 차별 금지: MFN 원리를 원용한다.; 5) 相互 責任: 협정 초기 GATT 24조 허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한다〔Cable and Henderson(1994, p. 14-15)〕.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 이상의 FTA의 회원이므로 GATT 24조를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VER, AD 등의 규정도 고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타 권고사항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자간 협상을 통한 自由貿易 世界經濟를 이루기 위해 선진국들 간의 협력, 그리고 미국의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헤게몬이 있어야 自由主義的 國際經濟가 安定된다는 가설(Hegemonic Stability Theor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다자주의는 단일권력에 의한 예외적인 경제적 지배와 역사적으로 시기가 일치한다는 단순한 관찰(19세기 후반 영국,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출발한 이 가설은 이론적 뒷받침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헤게몬(미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쌍무적 협정이 만발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론적인 지지도 차츰 축적되었으며, 무역, 통화, 기타 분야의 국제 협력은 강력한 리더쉽이 없을 때 매우 힘들다는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카르텔 이론에 따르면 회원이 많을 경우 支配的 企業(dominant firm)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집행할 때만 카르텔이 안정적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두 개 기업의 複占(duopoly)이 가장 유지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다극화 현상이 쌍무적 지역주의를 자극했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자유무역을 국제적 공공재로 간주한다면, 그 공공재의 공급을 원하는 강력한 국가의 압력이 없을 경우 다른 나라로서는 일방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출 유인이 없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세계경제에서 헤게몬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줄어들면 보호주의 사상이 부흥하고 해외원조도 줄게 되며 지역주의가 득세하게 된다〔Gilpin(2001, pp. 95-97)〕.[21]

동아시아는 미주나 유럽보다 훨씬 외부지향적이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개방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지역 통합에서 얻을 이득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Barrell and Choy(2003)〕.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더욱 자유로운 무역은 이미 장벽을 낮춘 나라들에게 상대적으로 이로운데, 이는 교역조건 호전 효과가 크고 관세수입 손실이 작다는 점에 기인한다〔Frankel(2000, p. 60)〕. 동아시아 쪽은 무역량이 많은 반면 지역적 특색이 없고 오히려 무역 대상은 세계적이었으며 GATT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이었다. 지역 통합을 주도하지도 않았다. 지역내 편향도 발견되지 않으며 비공식적 우선무역협정 같은 것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통합에서 貿易創出 效果가 더 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른 지역의 무역 블록이 동아시아의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적 보복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면 GATT 24조에 입각한 무역블록 형성으로 동아시아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Saxonhouse(1993, pp. 410-412)〕.

장기적인 대의를 위해 목표를 멀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世界化가 주춤하고 地域主義가 대세가 된다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 이득과 장기적 세계 후생을 저울질해야 한다. 당면한 여러 FTA 현안에 대처함에 있어 정책 당국이 개방적인 견해에 귀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22] MFN 원리에 기반을 둔 '開放的' 地域主義를 동아시아에 뿌리내리는 데 일본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Cable and Henderson(1994, pp. 104-106)〕.

結論的으로 첫째,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디딤돌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디딤돌이

---

(21) 자유주의적 국제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배적 경제권력에 의한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최초로 본격적으로 정립한 학자는 킨들버거〔Kindleberger(1986)〕이다. 그에 의하면 정상시에 헤게몬은 빈국으로의 자본이동을 유지하고 주요 통화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며 선진국 간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기시에는 품귀된 재화를 공급하고 특히 국제금융위기에는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1930년대에 헤게몬이 부재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가 심연으로 추락했다는 그의 설명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헤게모니 이론은 후학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여러 형태의 확대 해석과 비판이 아직도 진행중이다〔Gilpin(2001, pp. 97-102)〕.

(22) APEC의 FTA화는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2020년까지 실현할 것을 명시하였지만 저개발국은 2020년, 선진공업국은 2010년까지로 차별적 시간 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WTO에 가입한 중국에 대해 10년 동안이나 특혜를 주는 '선언'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리가 만무하다. 이 당시 '개방적' 지방주의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APEC 비회원국에 대한 MFN 원리를 염두에 두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의 입장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Barfield(1996, p. 151)〕.

되도록 세계경제의 환경을 고쳐나가야 한다. MFN원리로 회귀하는 데 미국과 EU가 앞장서야 하나 그럴 전망은 불투명하다. 둘째,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걸림돌로 계속 작용하더라도 지역통합 움직임에서 소외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므로 조심스럽게나마 FTA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23)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敎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5
팩스: (02)886-4231
E-mail: dyang@snu.ac.kr

(23)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디딤돌이 아닌 것 같다고 논거한 후에 걸림돌이더라도 지역주의가 차선책일지도 모른다고 한 결론은 일견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 글에서 정의된 '세계화'의 '극대후생'이 과연 극대후생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그것이 달성가능한 것인가 하는 현실적 질문에 연결되어 있다. 다른 편으로는 동태적 시간경로의 분석에는 가는 곳마다 각양각색의 경로종속(path dependence)이 있어 시야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다림과 장기분석, 장기대책수립에 걸려 있는 문제를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히 살펴보자는 것뿐이다.

附錄: GATT/WTO에 通報된 地域貿易 協定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Croatia - Bosnia and Herzegovina	1-Jan-01	6-Oct-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9	실사 미요청	…
Singapore - Australia	28-Jul-03	1-Oct-03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58 S/C/N/233	실사 미요청	…
Singapore - Australia	28-Jul-03	1-Oct-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8	실사 미요청	…
Turkey - Bosnia and Herzegovina	1-Jul-03	8-Sep-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7	실사 미요청	…
Turkey - Croatia	1-Jul-03	8-Sep-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6	실사 미요청	…
EC - Lebanon	1-Mar-03	4-Jun-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3	실사 미요청	…
Bulgaria - Lithuania	1-Mar-02	30-Apr-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2	실사 미시작	…
Bulgaria - Israel	1-Jan-02	14-Apr-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0	실사 미시작	…
Bulgaria - Latvia	1-Apr-03	8-Apr-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1	실사 미시작	…
Bulgaria - Estonia	1-Jan-02	25-Mar-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49	실사 미시작	…
CARICOM	1-Jul-97	19-Feb-03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55 S/C/N/229	실사 미시작	…
EFTA - Singapore	1-Jan-03	24-Jan-03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48 S/C/N/226	실사 미시작	…
EFTA - Singapore	1-Jan-03	24-Jan-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48	실사 미시작	…
Canada - Costa Rica	1-Nov-02	17-Jan-0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47	실사 미시작	…
EC - Croatia	1-Mar-02	20-Dec-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42	실사 미시작	…
EC - Jordan	1-May-02	20-Dec-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41	실사 미시작	…
EFTA	1-Jun-02	3-Dec-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54 S/C/N/207	실사 미시작	…
Japan - Singapore	30-Nov-02	14-Nov-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40 S/C/N/206	실사 미시작	…
Japan - Singapore	30-Nov-02	14-Nov-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40	실사 미시작	…
United States - Jordan	17-Dec-01	18-Oct-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34 S/C/N/193	실사 미시작	…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India - Sri Lanka	15-Dec-01	26-Jun-02	Enabling Clause	Free trade agreement	WT/COMTD/N/16	실사 미요청	…
EC - Mexico	1-Mar-01	21-Jun-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09 S/C/N/192	실사중	…
Chile - Costa Rica	15-Feb-02	24-May-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36 S/C/N/191	실사 미시작	…
Chile - Costa Rica	15-Feb-02	14-May-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6	실사 미시작	…
Turkey - Slovenia	1-Jun-00	6-Mar-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5	실사중	…
United States - Jordan	17-Dec-01	5-Mar-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4	실사 미시작	…
EC - Slovenia	1-Feb-99	11-Feb-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46 S/C/N/190	실사중	…
EC - Lithuania	1-Feb-98	11-Feb-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45 S/C/N/189	실사중	…
EC - Estonia	1-Feb-98	11-Feb-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44 S/C/N/188	실사중	…
EC - Latvia	1-Feb-99	11-Feb-02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43 S/C/N/187	실사중	…
EC - Jordan	1-Jan-02	22-Jan-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3	실사 미시작	…
EFTA - Croatia	1-Jan-02	22-Jan-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2	실사 미시작	…
Slovenia - Bosnia and Herzegovina	1-Jan-02	21-Jan-0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1	실사 미시작	…
EC - FYROM	1-Jun-01	21-Nov-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9	실사중	…
Hungary - Estonia	1-Mar-01	4-Oct-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8	실사중	…
New Zealand - Singapore	1-Jan-01	4-Sep-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7	실사중	…
New Zealand - Singapore	1-Jan-01	4-Sep-01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27 S/C/N/169	실사중	…
EFTA - Mexico	1-Jul-01	25-Jul-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6	실사중	…
EFTA - Mexico	1-Jul-01	25-Jul-01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26 S/C/N/166	실사중	…
Chile - Mexico	1-Aug-99	14-Mar-01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25 S/C/N/142	실사중	…
Chile - Mexico	1-Aug-99	27-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5	실사중	…
Mexico - Israel	1-Jul-00	27-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4	실사중	…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Georgia - Armenia	11-Nov-98	21-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9	실사중	…
Georgia - Azerbaijan	10-Jul-96	21-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0	실사중	…
Georgia - Kazakhstan	16-Jul-99	21-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3	실사중	…
Georgia - Russian Federation	10-May-94	21-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8	실사중	…
Georgia - Turkmenistan	1-Jan-00	21-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2	실사중	…
Georgia - Ukraine	4-Jun-96	21-Feb-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1	실사중	…
EFTA -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Jan-01	31-Jan-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7	실사완료	…
Latvia - Turkey	1-Jul-00	22-Jan-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6	실사완료	…
Turkey -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Sep-00	22-Jan-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5	실사완료	…
Kyrgyz Republic - Armenia	27-Oct-95	4-Jan-01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4	실사중	…
EC - South Africa	1-Jan-00	14-Nov-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3	실사 미시작	…
EC - Morocco	1-Mar-00	8-Nov-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2	실사중	…
EC - Israel	1-Jun-00	7-Nov-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0	실사완료	…
EAC	7-Jul-00	11-Oct-00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WT/COMTD/N/14 WT/COMTD/25	실사 미요청	…
CEMAC	24-Jun-99	28-Sep-00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WT/COMTD/N/13 WT/COMTD/24	실사 미요청	…
EC - Mexico	1-Jul-00	1-Aug-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09	실사중	…
Estonia - Ukraine	14-Mar-96	25-Jul-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08	실사완료	…
Poland - Turkey	1-May-00	14-May-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07	실사완료	…
EFTA - Morocco	1-Dec-99	20-Feb-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91	실사완료	…
WAEMU/UEMOA	1-Jan-00	3-Feb-00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WT/COMTD/N/11 WT/COMTD/23	실사 미요청	…
Bulgaria -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Jan-00	21-Jan-0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90	실사완료	…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Hungary - Latvia	1-Jan-00	20-Dec-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4	실사완료	…
Hungary - Lithuania	1-Mar-00	20-Dec-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3	실사완료	…
MSG	22-Jul-93	7-Oct-99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WT/COMTD/N/9 WT/COMTD/21	실사 미요청	…
CIS	30-Dec-94	1-Oct-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2	실사중	…
Kyrgyz Republic - Kazakhstan	11-Nov-95	29-Sep-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1	실사중	…
Poland - Latvia	1-Jun-99	29-Sep-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0	실사완료	…
EFTA - Palestinian Authority	1-Jul-99	21-Sep-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9	실사 미시작	…
Poland - Faroe Islands	1-Jun-99	18-Aug-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8	실사완료	…
BAFTA	1-Apr-94	15-Jun-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7	실사완료	…
Kyrgyz Republic - Moldova	21-Nov-96	15-Jun-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6	실사완료	…
Kyrgyz Republic - Russian Federation	24-Apr-93	15-Jun-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3	실사중	…
Kyrgyz Republic - Ukraine	19-Jan-98	15-Jun-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4	실사중	…
Kyrgyz Republic - Uzbekistan	20-Mar-98	15-Jun-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5	실사중	…
Bulgaria - Turkey	1-Jan-99	4-May-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2	실사완료	…
Czech Republic - Turkey	1-Sep-98	24-Apr-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7	실사완료	…
EAEC	8-Oct-97	6-Apr-99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71	실사중	…
CEFTA accession of Bulgaria	1-Jan-99	24-Mar-99	GATT Art. XXIV	Accession to free trade agreement	WT/REG11	보고서초안 검토중	…
Slovak Republic - Turkey	1-Sep-98	24-Mar-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8	실사완료	…
EC - Tunisia	1-Mar-98	23-Mar-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9	실사완료	…
Estonia - Turkey	1-Jun-98	23-Mar-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0	실사완료	…
Slovenia - Israel	1-Sep-98	8-Mar-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6	실사완료	…
Poland - Israel	1-Mar-98	25-Feb-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5	실사완료	…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Estonia - Faroe Islands	1-Dec-98	26-Jan-9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4	실사완료	…
Czech Republic - Estonia	12-Feb-98	3-Aug-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2	실사완료	…
Slovak Republic - Estonia	12-Feb-98	3-Aug-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3	실사완료	…
Lithuania - Turkey	1-Mar-98	8-Jun-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1	실사완료	…
Israel - Turkey	1-May-97	18-May-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60	실사완료	…
Romania - Turkey	1-Feb-98	18-May-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59	실사완료	…
Hungary - Turkey	1-Apr-98	12-May-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58	실사완료	…
Czech Republic - Israel	1-Dec-97	30-Mar-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56	실사완료	…
Slovak Republic - Israel	1-Jan-97	30-Mar-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57	실사완료	…
Slovenia - Croatia	1-Jan-98	25-Mar-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55	실사완료	…
Hungary - Israel	1-Feb-98	24-Mar-98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54	실사완료	…
EC - Andorra	1-Jul-91	25-Feb-98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53	실사완료	…
CEFTA accession of Romania	1-Jul-97	8-Jan-98	GATT Art. XXIV	Accession to free trade agreement	WT/REG11	보고서초안 검토중	…
CEFTA accession of Slovenia	1-Jan-96	8-Jan-98	GATT Art. XXIV	Accession to free trade agreement	WT/REG11	보고서초안 검토중	…
Poland - Lithuania	1-Jan-97	30-Dec-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9	실사완료	…
Slovak Republic - Latvia	1-Jul-97	14-Nov-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7	실사완료	…
Slovak Republic - Lithuania	1-Jul-97	14-Nov-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8	실사완료	…
Canada - Chile	5-Jul-97	13-Nov-97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38 S/C/N/65	실사중	…
Czech Republic - Latvia	1-Jul-97	13-Nov-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5	실사완료	…
Czech Republic - Lithuania	1-Sep-97	13-Nov-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6	실사완료	…
Romania - Moldova	1-Jan-95	24-Sep-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4	실사완료	…
Canada - Chile	5-Jul-97	26-Aug-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8	실사완료	…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EC - Palestinian Authority	1-Jul-97	30-Jun-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3	실사 미시작	…
EC - Bulgaria	1-Feb-95	25-Apr-97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 S/C/N/55	실사중	…
Slovenia - Estonia	1-Jan-97	20-Feb-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7	실사완료	…
Slovenia -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Sep-96	20-Feb-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6	실사완료	…
Slovenia - Latvia	1-Aug-96	20-Feb-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4	실사완료	…
Slovenia - Lithuania	1-Mar-97	20-Feb-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5	실사완료	…
EC - Faroe Islands	1-Jan-97	19-Feb-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1	실사중	…
Canada - Israel	1-Jan-97	23-Jan-9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1	실사완료	…
EC - Slovenia	1-Jan-97	11-Nov-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2	실사완료	…
EEA	1-Jan-94	10-Oct-96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38 S/C/N/28	실사중	…
EC - Czech Republic	1-Feb-95	9-Oct-96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139 S/C/N/26	실사중	…
EC - Romania	1-Feb-95	9-Oct-96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2 S/C/N/27	실사중	…
EC - Hungary	1-Feb-94	27-Aug-96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50 S/C/N/24	보고서초안 검토중	…
EC - Poland	1-Feb-94	27-Aug-96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51 S/C/N/25	실사완료	…
EC - Slovak Republic	1-Feb-95	27-Aug-96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52 S/C/N/23	실사완료	…
EFTA - Estonia	1-Jun-96	25-Jul-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8	실사완료	…
EFTA - Latvia	1-Jun-96	25-Jul-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9	실사완료	…
EFTA - Lithuania	1-Aug-96	25-Jul-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30	실사완료	…
EC - Czech Republic	1-Mar-92	13-May-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8	실사완료	…
EC - Slovak Republic	1-Mar-92	13-May-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8	실사완료	…
Faroe Islands - Norway	1-Jul-93	13-Mar-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5	실사완료	…
Faroe Islands - Switzerland	1-Mar-95	8-Mar-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4	실사완료	…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Faroe Islands - Iceland	1-Jul-93	23-Jan-9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3	실사완료	…
EC - Turkey	1-Jan-96	22-Dec-95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22	실사중	…
CER	1-Jan-89	22-Nov-95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40 S/C/N/7	보고서초안 검토중	…
EC (Treaty of Rome)	1-Jan-58	10-Nov-95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39 S/C/N/6	실사중	…
EFTA - Slovenia	1-Jul-95	18-Oct-95	GATS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0	실사완료	…
EC - Lithuania	1-Jan-95	26-Sep-95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9	실사완료	…
EC - Estonia	1-Jan-95	30-Jun-95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	실사완료	…
EC - Latvia	1-Jan-95	30-Jun-95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7	실사완료	…
COMESA	8-Dec-94	29-Jun-95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WT/COMTD/N/3	실사 미요청	…
NAFTA	1-Apr-94	1-Mar-95	GATS Art. V	Services agreement	WT/REG4 S/C/N/4	보고서초안 검토중	…
EC accession of Austria, Finland and Sweden	1-Jan-95	20-Jan-95	GATT Art. XXIV	Accession to customs union	WT/REG3 L/7614/Add.1	보고서초안 검토중	…
EC accession of Austria, Finland and Sweden	1-Jan-95	20-Jan-95	GATS Art. V	Accession to services agreement	WT/REG3 S/C/N/6	보고서초안 검토중	…
EC - Bulgaria	31-Dec-93	23-Dec-94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	실사완료	…
EC - Romania	1-May-93	23-Dec-94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2	실사완료	…
CEFTA	1-Mar-93	30-Jun-94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	보고서초안 검토중	…
EFTA - Hungary	1-Oct-93	23-Dec-9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	보고서초안 검토중	…
EFTA - Poland	15-Nov-93	20-Oct-9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5	실사완료	…
SAPTA	7-Dec-95	22-Sep-93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WT/COMTD/10	실사 미요청	…
EFTA - Bulgaria	1-Jul-93	30-Jun-9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2	실사완료	…
EFTA - Romania	1-May-93	24-May-9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6	실사완료	…
Czech Republic - Slovak Republic	1-Jan-93	30-Apr-93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89	보고서 채택	41S/112 04.10.94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NAFTA	1-Jan-94	1-Feb-9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4	보고서초안 검토중	…
EFTA - Israel	1-Jan-93	1-Dec-9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4	실사완료	…
AFTA	28-Jan-92	30-Oct-92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4581	실사 미요청	…
CAN	25-May-88	12-Oct-92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6737	실사 미요청	…
ECO	not available	22-Jul-92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7047	실사 미요청	…
EFTA - Czech Republic	1-Jul-92	3-Jul-9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7	보고서 채택	41S/116 08.12.94
EFTA - Slovak Republic	1-Jul-92	3-Jul-9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8	보고서 채택	41S/116 08.12.94
EC - Hungary	1-Mar-92	3-Apr-9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8	보고서초안 검토중	…
EC - Poland	1-Mar-92	3-Apr-9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8	실사완료	…
EFTA - Turkey	1-Apr-92	6-Mar-9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6	보고서 채택	40S/48 17.12.93
MERCOSUR	29-Nov-91	5-Mar-92	Enabling Clause	Customs union	WT/COMTD/1	실사중	…
Laos - Thailand	20-Jun-91	29-Nov-91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6947	실사 미요청	
EC accession of Portugal and Spain	1-Jan-86	11-Dec-85	GATT Art. XXIV	Accession to customs union	L/5936	보고서 채택	35S/293 19.10.88
United States - Israel	19-Aug-85	13-Sep-85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L/5862 L/5862/Add.1	보고서 채택	34S/58 14.05.87
GCC	not available	11-Oct-84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5676	실사 미요청	…
CER	1-Jan-83	14-Apr-8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11	보고서 채택	31S/170 02.10.84
LAIA	18-Mar-81	1-Jul-82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5342	실사 미요청	…
SPARTECA	1-Jan-81	20-Feb-81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5100	실사 미요청	…
EC accession of Greece	1-Jan-81	24-Oct-79	GATT Art. XXIV	Accession to customs union	L4845	보고서 채택	30S/168 09.03.83
EC - Egypt	1-Jul-77	15-Jul-7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98	보고서 채택	25S/114 17.05.78
EC - Syria	1-Jul-77	15-Jul-77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04	보고서 채택	25S/123 17.05.78
PATCRA	1-Feb-77	20-Dec-7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L/4451 L/4451/Add.1	보고서 채택	24S/63 11.11.77

협정명	발효일	GATT/WTO 통보			서류번호	실사과정	
		통보일	근거조항	협정종류		현황	채택일 및 등록번호
Bangkok Agreement	17-Jun-76	2-Nov-76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4418 L/4418/Corr.1	보고서 채택	25S/109 14.03.78
EC - Algeria	1-Jul-76	28-Jul-76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05	보고서 채택	24S/80 11.11.77
CARICOM	1-Aug-73	14-Oct-74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92	보고서 채택	24S/68 02.03.77
EC - Norway	1-Jul-73	13-Jul-73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37	보고서 채택	21S/83 28.03.74
EC - Cyprus	1-Jun-73	13-Jun-73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9	보고서 채택	21S/94 21.06.74
EC - Iceland	1-Apr-73	24-Nov-7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95	보고서 채택	20S/158 19.10.73
EC -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1-Jan-73	27-Oct-72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94	보고서 채택	20S/196 19.10.73
EC accession of Denmark, Ireland and United Kingdom	1-Jan-73	7-Mar-72	GATT Art. XXIV	Accession to customs union	L/3677	보고서 채택	C/M/107 11.07.75
GSTP	19-Apr-89	25-Sep-89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6564/Add.1	실사 미요청	…
PTN	11-Feb-73	9-Nov-71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3598 18S/11	실사 미요청	…
EC - Malta	1-Apr-71	24-Mar-71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102	보고서 채택	19S/90 · 29.05.72
EC - OCTs	1-Jan-71	14-Dec-70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106	보고서 채택	18S/143 09.11.71
EFTA accession of Iceland	1-Mar-70	30-Jan-70	GATT Art. XXIV	Accession to free trade agreement	L/3328 L/3328/Add.1	보고서 채택	18S/174 29.09.70
TRIPARTITE	1-Apr-68	23-Feb-68	Enabling Clause	Preferential arrangement	L/2980 L/2980/Add.1	보고서 채택	16S/83 4.11.68
CACM	12-Oct-61	24-Feb-61	GATT Art. XXIV	Customs union	WT/REG93	보고서 채택	10S/98 23.11.61
EFTA (Stockholm Convention)	3-May-60	14-Nov-59	GATT Art. XXIV	Free trade agreement	WT/REG85	보고서 채택	9S/70 04.06.60
EC (Treaty of Rome)	1-Jan-58	24-Apr-57	GATT Art. XXIV	Customs Customs union	L/626	보고서 채택	6S/70 & 109 29.11.57

參 考 文 獻

김세원(2004):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서울, 박영사.

양동휴(2004):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미발표 원고.

Baldwin, Richard E., Daniel Cohen, Andr Sapir, and Anthony Venables(eds.)(1999): *Market Integration, Regionalism and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field, Claude E.(1996): "Regionalism and U. S. Trade Policy," in Jagdish Bhagwati, and Arvind Panagariya(eds.),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Washington, D.C., AEI Press, 136-157.

Barrell, Ray, and Amanda Choy(2003): "Economic Integration and Openness in Europe and East Asia," NIESR, paper presented at the ASEM Symposium on Multilateral and Regional Economic Relations, Tokyo, March 25.

Bhagwati, Jagdish(1991): *The World Trading System as Ris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in De Melo and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22-57.

Bhagwati, Jagdish, and Arvind Panagariya(1996a):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ltilateralism Strangers, Friends, or Foes?," in Bhagwati, and Panagariya(eds.),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1-78.

_____(eds.)(1996b):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Washington, D.C., AEI Press.

Bhagwati, Jagdish, Pravin Krishna, and Arvind Panagariya(eds.)(1999): *Trading Blocs: An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Cambridge, MIT Press.

Cable, Vincent, and David Henderson(eds.)(1994): *Trade Blocs?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lark, Ian(1997): *Globalization and Fragment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e Melo, Jaime, and Arvind Panagariya(eds.)(1993):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ee, Philippa, and Jyothi Gali(2003): "The Trade and Investment Effects of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Paper prepared for Fourteenth Annual NBER-East Asian Seminar on Economics,

Taipei, 5-7, September.

Eichengreen, Barry(1995): "The European Payments Union: An Efficient Mechanism for Rebuilding Europe's Trade?" in Barry Eichengreen(ed.), *Europe's Post-war Recov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9-195.

Ethier, W.(1998): "Regionalism in a Multilateral Worl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December, 1214-1245.

Finger, J. Michael(1993): "GATT's Influence on Regional Arrangements," in De Melo, and Panagariya(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128-158

Frankel, Jeffrey A.(1997):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_____(ed.)(1998):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2000):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n Nye, and Donahue(eds.),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45-71.

Gilpin, Robert(2000):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iswold, Daniel T.(2003): "Free-Trade Agreements: Steppingstones to a More Open World," CATO Institute, Center for Trade Policy Studies, Trade Briefing Paper, No. **18**, July 10.

James, Harold(2001): *The End of Globalization :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Kindleberger, Charles P.(1986):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rugman, Paul(1993):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Analytical Notes," in De Melo, and Panagarnya(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58-89.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eds.)(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Nye, Joseph S. Jr., and John D. Donahue(eds.)(2000):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Visions of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Oman, Charles(1994): *Globalisation and Regionalisation: The Challenge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Development Centr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nagariya, Arvind(2000): "Preferntial Trade Liberalization: The Traditional Theory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8**, June, 287-331.

Pomfret, Richard(1997): *The Economics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xonhouse, Gary R.(1993): "Trade blocs and East Asia," in De Melo, and Panagariya(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388-422

Schott, Jeffrey J.(ed.)(2000): *The WTO after Seattle*,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iebert, Horst(1999): *The World Economy*, London, Routledge.

Subramanian, Arvind, and Shang-Jin Wei(2003): "The WTO Promotes Trade, Strongly but Unevenly," NBER Working Paper, **10024**, October.

Winters, L. Alan(1996):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687**.

Wonnacott, Paul(1996): "Beyond NAFTA - The Design of a 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s," in Bhagwati, and Panagariya(eds.), *The Economics o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79-107

WTO(2004): *Regional Trade Agreements: Facts and Figures*, Geneva, Switzerland.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Yang, Donghyu(2004): "The Marshall Plan: Economic Achievements and Current Implications," Mimeo.